

함께가는 여성

2008. 1·2 www.womenlink.or.kr

민우ing

다시 '차별'이라는 키워드로
2007 고용평등상담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기타 등등'

쟁점과 현안

'신성장연합'에 대응하는 복합적인 신평등연합'을 향하여
'신보수 정권' 시대의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함께가는 회원상 한국여성민우회 회원들 모두!!



민우회가 살아가는 힘!
바로 당신, 민우회 회원들입니다.

당신의 삶이 저의 얼굴입니다.
당신의 지지와 인정이 저의 몸입니다.
당신의 열정과 믿음이 저의 손과 발입니다.
당신이 있어 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마음 가득 고마움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08년 1월 26일
한국여성민우회 드림



02 민우ing

02 다시 '차별'이라는 키워드로 _ 은날

04 2007 고용평등상담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기타 등등' _ 신기루

06 민우칼럼 창 • 생활 속 실천, 아들에게 집안일 시키기! _ 박어진

08 특집 • 2008 총회스케치와 신년인사

08 따뜻하게, 뿌듯하게, 친근하게 민우회를 만나는 시간 _ 조희정

10 2008년, 민우회에 펼쳐질 재미난 사업들은? _ 박봉정숙

13 민우회와 함께하시는 새 임원진을 소개합니다~!

15 21주년, 새로운 도전 앞에서 _ 권미혁, 유경희, 김인숙

16 민우스케치

17 쟁점과 현안 • '신성장연합'에 대응하는 복합적인 신평등연합'을 향하여
- '신보수 정권' 시대의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_ 조희연

20 국제통신원 • scene 'FAMILY' #1, #2, #3 _ 난나

22 문화산책 • 최악의 조합, '사랑하는 친구' - 6년째 연애중 _ 신나

24 모람풍경

24 한국의 '바람계곡의 나무시카', 태안을 치유하다 _ 히로

26 리다의 한식조리사 합격기 _ 리다

28 평등 사무실에서 • 꾸준한 꾸준 사무실을 꿈꾸며 - 그녀들의 메디컬 히스토리 _ 따우

30 생협이야기 • 세상과 통하는 법 _ 최정은

32 모람활동

32 다소 • 북카페|호점 - 보이지 않는 가슴 (Invisible Heart)

33 기타반 ETC의 음악다방

34 민우알림

34 지부소식

36 독자미당



다시 ‘차별’이라는 키워드로 1)

은날 •

‘차별금지법’을 넘어서

차별금지법. 이 법안명에서 무엇이 연상될까? 차별이 뭐지? 어떻게 금지할 것인지? 그리고 법으로 차별이 금지될 수 있을까? 물론 어떤 법 하나 똑딱 만든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차별(의식)이 금지되거나 철폐되기는 어렵다. 이는 그동안 많은 법의 제정, 개정 운동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다. 즉 어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역시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여론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차별금지법(안)이 하루아침에 똑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3여 년 동안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2006년 7월 권고안을 제출하고, 2007년 9월 법무부 입법공청회를 거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의견수렴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했지만, 법무부의 입법공청회 때까지만 해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해 10월 법무부가 기존의 ‘차별금지법’(안)에서 금지한 차별사유 중 별다른 이유 없이 7개 항목(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을 삭제하여 법제처에 제출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²⁾ 이렇게 애초의 차별금지법의 목적 및 역할이 그야말로 '훼손'되면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7개 항목은 어떤 기준에서, 누구의 의견으로 삭제되었는가? 7개 항목에 해당하는 차별은 차별이 아닐까? 그렇다면 올바른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나아가 우리 사회의 많은 차별을 어떻게 드러내고 문제삼을 것인가? 이러한 차별을 구성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이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논의는 법 자체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논의, 이에 대한 대응활동에 의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차별'을 넘어서

이처럼 '훼손된 차별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 등이 결성되었다. 이들 연대단위들은 현재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대응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의 입법활동을 넘어서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즉 차별금지법 마련을 위한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차별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일명 '반차별 운동'이라는 큰 틀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민우회는 그간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그 구조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차별금지법(안) 마련 과정에 개입해왔다. 이는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모

든 차별을 해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여러 다종다양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든 안되든, 바로 지금 '반차별 운동'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말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우회는 2008년 '반차별'을 키워드로 우리 일상에서의 차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사실 '차별', '반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간 민우회가 해온 활동과 동떨어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민우회를 비롯한 여성주의와 여성운동은 그간 우리 사회의 차별을 문제 삼아 왔고 또 그 누구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일을 차별로 명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우리 내부의 차별을 드러내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개별 차별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별이 만들어지는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역사는 성차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얽혀있는 온갖 차별들을 좀더 민감하게 읽어내는 감수성을 키워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운동이 가진 차별철폐운동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다시 '차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 안의 차별, 우리 안의 차별을 이야기해야 한다.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온갖 차별의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나이 때문에, 성별 때문에, 성적 지향 때문에, 학력 때문에, 혼인 여부 및 임신·출산 때문에 어디선가 한 번쯤 차별을 경험했고, 또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를 차별했을 수도 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차별을 경험하고 이것도 차별, 저것도 차별이니 어쩌란 말이고? 이 질문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그런 차별이 발생하는지, 그런 차별이 없는 우리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의 질문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함**

1) 이 글은 지난 2007년 12월 광주여성민우회 소식지 [민우]에 실렸던 '다시 차별이라는 키워드로'란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현재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그 과정에서의 논점들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www.womenlink.or.kr),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 홈페이지(www.lgbtact.org),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http://cafe.naver.com/banchabyul>)을 참고.

은날 ● 노동·지역탐장. 한기가 드는 창가자리에 앉아
조용히 수많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이번호 '평동사무실에서'에서 찾아보세요. ^^

2007 고용평등상담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기타 등등'

신기루 ●



“남성적 질서 자체가 힘 있는 것은 그것의 정당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노동에 대한 성적인 구분이 그러하며 각 성에 주어진 활동과 장소, 시기, 도구들에 대한 엄격한 분배 또한 이 힘에 의해 작동한다.”

P. 부르디외, 『남성지배』

2007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은 총 323건이다. 300여건을 조금 넘기는 사례들로 여성노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겸손을 한 자락 깔고, 올 한해 상담을 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으니 여기서는 의미 있는 사례(어떠한 관점에서 의미인가는 물어두자, 대개 그 의미란 재미일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민우회 여성노동운동 20년, 고용평등 상담 활동 또한 20년이다. 명사적, 물리적 폭력과 차별이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에서 파생하여 이를 강화, 재생산하는 언어와 생활양식(사고방식, 언어표현방식, 행동방식, 표징, 낙인)을 통한 차별은 그 존재감을 더해가고 있다. 대중여성운동, 일상 속의 여성운동을 구현하는 민우회에서 일하는 자로서, 구조적 혁명 등 본질적 논의를 거부, 회피하는 자로서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류의 사례는 뒤로한다. 사례를 분류할 때 소위 '기타'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이 글에서는 주요사례이다. 이것들은 여성노동자들의 자기 성장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새롭게 출현하는 한계를 포착하고, 남성노동자의 지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강화하는 데 동원

되는 언어, 생활양식의 작동이 드러난다는 데서 흥미로운 것들이다. 남성'은 무엇으로 여성을 지배하는가? 고용상의 성차별 기타 사례에 이런 것이 있다.

- 매년 피복비를 책정하여 남자직원에게는 점퍼를, 여직원에게는 치마 유니폼을 지급한다. 치마 유니폼 착용을 안 하겠다는 여직원에게서 사유서 제출과 일체의 피복비 지급을 받지 않겠다는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 接客기준 내용을 보면, 매니큐어 색깔 지정, 손톱 정리 수준 등도 있고, 머리 모양도 모두 업스타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일종의 머리망을 지급하여 그것으로만 머리를 고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接客기준은 공식, 비공식적인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고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여기서 미용, 의상, 피부 관리, 화장품, 손톱의 상태 등을 통해서 표출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성성'에 대한 기대가 엿보인다. 남성은 바지, 여성은 치마라는 자연스러운 범주화, 머리부터 손톱까지 신체의 각 부분에 “단정하고 깔끔한” 여성성을 재현할 것을 인사권을 통해 ‘근엄하게’ 요구한다. 그런데 여성들은? 남성의 기호와 취향에 만족을 주고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취향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 그 요구에 믿음과 지지를 철회하는 것에 대한 고려,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 이 두 사례가 소중하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에 대한 상징들 위에 비정규직에 대한 구분과 배제를 덧입는다. 즉, 비정규직여성을 평가하는 방식, 일하는

공간에서 이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반말, 구분된 호칭, 매서운 눈초리, 혹독한 관리, 혐오의 표출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이라서”가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근거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공간에서는 이미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상징폭력이 작동하고 있다.

-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고 물어보길래, 왜 물어보는지 의아해했지만 친절하게 답변을 했다. 그런데도 불친절하게 답변했다고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했다. → 혐오 표출 가능!
- 보험설계사의 개인 고용한 비서로 일하는데 회사에서 업무상 오해가 있었다. 나를 작은 회의실로 불러서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반말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멀시의 눈초리와 욕박지르던 분위기를 잊을 수 없다. → 무시와 욕박지름 가능!
- 40대 정규직 남자 조리장이 이름을 붙여 ‘○○아줌마’라고 부른다. 우리들은 4, 50대고 조리원이라는 직책이 있는데도 이렇게 부르면서 반말로 이것저것 지시 한다. → 분리 호칭!

누구랑 비교해서 상처 주는 것이 쉽고도 저열한 방법이자 차별의 가장 보편적인 수법이다. 비정규직 여성은 이러한 수법에 의해 현재, 가장 존스러운 상징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의 직무에 관한 저평가와 비정규직 여성들을 대하는 위 사례와 같은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 “비정규직 이니까”가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 하는 자연스러운 근거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동의와 인준의 과정에서 최대의 긴장과 해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곧 저항이다. 사용자들이 차별적 구조를 만들고 문화적 정당화 기제를 퍼뜨리는 주체라면, 이를 인준하여 공모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이다. 민주사회 참여사회, 문화주권 행사하자.

직장내 성희롱은 해마다 고용평등상담실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사례이다. 올해도 31.6%(102건의) 성희롱 상담이 있었다. 성희롱 기타 사례에서는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무한한 확장이 우리의 운동을 살피우는 것인양 고민하게 했다.

- 과장이 들어와 나를 보더니 ‘너 흑시 별명이 떡판이 아니냐?’ 고 말했다.
- “하체가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바지만 입으시는구나” 했는데.

직장내 성희롱이 법제화된 지 10년, 남성권력에 대항하여 가장 통하는 말이 된 ‘성희롱’은 직장내에서 남성들에 대항하는 대표선수가 되었다. 법(다른 이름으로 남성 질서)이 인준한 공식 언어 ‘성희롱’이 외모 비하, 불쾌한 농담, 불쾌한 관계를 해소하는 만능의 수단이 아님에도 이런 사례에서 많은 내담자들은 법적인 대응과 고소가 가능 여부, 성희롱인지 여부를 물어왔다. ‘성희롱’을 빌리지 않은 저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불쾌감을 표출하는 것은 특정한 계급의 이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긴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문화적인 임의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에 남성 지배의 핵심이 있다. 이 과정에 균열을 만드는 것이 저항하는 여성의 몫이다. 이쯤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 노래방에 가서 모두가 서서 노래를 부르는 분위기였는데, 감사가 다가오더니 내 가슴을 만지고 지나갔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황당했다. 노래방이 끝난 후에 감사와 같은 차를 타게 됐다. 분노가 생겨서 감사를 한 대 쳤다.

노래방에서 나갈 때까지 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자 한계일 수 있지만, 끝내 자신의 분노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데 반전이 있다.

상징적인 폭력이 수용되는 과정은 그 경로마저도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워 이것을 따를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굳이 화장을 안 하거나 바지를 고집하거나 걸걸한 목소리와 거친 피부를 드러내거나 하지 않는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가슴을 뻘히 쳐다보거나 만지는 손길이 있을 때 끝끝내 참아버린다면 성희롱이 가능한 일상은 ‘자연스럽게’ 재생산 된다. 무언가 불쾌한 순간이 다가온다면, 그것이 법적 ‘성희롱’이 아닐지라도, 불쾌감,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일상의 차원의 상징폭력을 흔들 수 있는 역사적 중차대한 순간이다. 사회적으로(남성지배질서) 일하는 여성에게 부여한 이미지, 태도, 사고, 성향, 언어가 있다. 이것들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기타 사례’에 대해 황당함만 느낄 것이나 이것의 내재화를 거부하고 있다면 꿈틀! 시선으로, 말로, 태도로, 옷으로 저항할 수 있다. 바야흐로 이미지가 지배하고 이미지로 싸우는 시대이다. **▶**

1) 이 글에서 ‘남성’은 SEX가 남성인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질서에서 지배계급으로서 지위를 점하는 집단으로서의 남성, 남성성을 말한다.

작년 고3이던 아들에게 한 해 동안 설거지 면제의 특전을 부여했다. 초딩 시절부터 일요일 저녁 설거지 당번으로 활약해 온 아들, 지금 녀석은 재수학원을 물색 중이다. 문제는 재수생에게도 설거지 면제 특전을 계속 주어야 할지 여부다. 가족회의의 의제로 올려야 할 모양. 당사자는 재수생 신분의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설거지 면제를 읍소한다. 글썄, 재수생만 인생 살기 어려운 건 아니잖아? 아들만 빼고는 모두들 냉정하다. 그래도 생모인 나는 대학 입학의 중압감을 이해하는 입장. 아들의 설거지 면제 쪽으로 한 표 던질 심산이다. 아들의 다섯 살 손위 누나는 일요일 저녁 설거지를 면제 하는 대신,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부정기적으로 하는 설거지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아들이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한다고 평소 생각해 온 내 남편, 설거지 위에 빨래 개키기까지 없어 가사노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재수학원 개강 전까지 공다방, 별다방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학원비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고 볼멘소리도 한다. 종합적으로 비우호적 분위기에 아들은 섭섭한 눈치.

학교 교과 과목에 기술과 통합된 가정 시간이 분명 들어있는데도 아들은 가정 시간에 요리를 별로 배운 게 없다고 한다. 시설이나 재료준비 등 번거로움을 이유로 학교 당국도 음식 만들기를 기피해온 모양이다. 누나가 부엌에서 때때로 요리 강습을 시켜주지만 집중도가 높지 않고 열의가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요즘 요리 잘하는 남자가 트렌드라는 힌트를 줘도 동기부여가 안 되

는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할 줄 아는 거라곤 라면 끓이기와 씨리얼 만들어 먹기 정도. 바느질도 분명 배웠는데 교복 단추가 떨어지면 엄마에게 기대려고 애교를 부린다. 고3 때는 웬지 아들이 불쌍해 보여 두말없이 단추를 달아 주었지만 졸업만 하면 어림없다고 속으로 굳은 결심을 한 나다. 녀석은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은 어엿한 사회인 아닌가?

엄마의 왕자로 떠받들려 키워진 남편들 때문에 이 땅의 딸들은 참 많이도 분통이 터졌다. 큰 인물로 키운답시고 아들에게 부엌 싱크대에 손 담그지 못하게 한 엄마들. 그 왕자들이 한·미관계와 중동 평화, 그리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다만 왕자가 자라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을 때

생활 속 실천, 아들에게 집안일 시키기!

박어진 ●

그가 세탁기에 양말을 제대로 뒤집어 넣거나 할까? 또 면도 후 세면대 주위에 널린 면도의 흔적들을 제대로 처리 하거나 할까? 아무리 말끔하게 정리정돈을 해놓아도 일주일이면 방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는, 어지르기 천재 아들을 둔 한 친구는 병역비리를 저질러서라도 아들을 현역 입대 시키고 싶을 지경이라고 한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정돈되어 있는 군대 내무반 풍경이 그리도 좋아 보인다. 그 문제적 아들에게도 여자 친구가 생긴 모양. 밤마다 잔뜩 어질러진 방에서 한 시간씩 소곤대며 동화하는 아들을 보면 그 여자 친구의 앞날이 심히 걱정이라는 그녀. 우리 모두 각자 아들들의 비리를 생각하느라 맘 놓고 웃을 수 없는 처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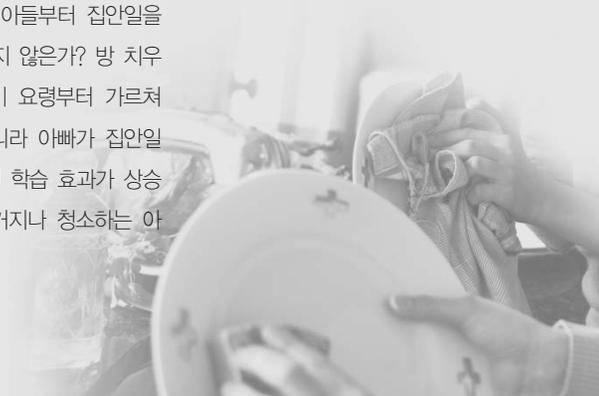
민우회가 내건 생활 속 집중 실천 주제들을 하나 하나 읽어본다. 11가지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 속엔 '자기 컵 들고 다니기'나 '재래시장 이용하기' 같이 손쉽고 즐거운 실천 방안들이 들어있어 해 볼만 하다. '열심히 듣고 나중에 말

하기' 같은 주제 앞엔 가슴이 뜨끔하다. 평소 왕수다인 처지라 말하는 만큼 열심히 들었는지 차마 대답할 수 없다. '나이, 학력, 결혼 여부, 출신지역 묻지 않기'는 평등감수성을 높이려는 취지.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기꺼이 불편해지는' 실천과 함께 '아들에게 집안일 시키기'는 어떨까? 아들 키우는 엄마들의 핵심 실천과제로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다. 굳이 어렵게 말하자면 '가사노동 민감성' 높이기가 목표일 것. 이 땅의 여성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여성인 엄마들이 나서야 한다. 집이 여성의 유일한 직장이던 시대,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독점했다. 집안일과 바깥일을 둘 다 해야 하는 시대, 여성들은 가사노동 독점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남편감들은 누군가의 아들일 터. 일단 내 아들부터 집안일을 배우게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방 치우기나 빨래 털어 넣기 요령부터 가르쳐야 한다. 엄마뿐 아니라 아빠가 집안일 가르치기에 앞장서면 학습 효과가 상승할 것이다. 평소 설거지나 청소하는 아

빠를 보고 자란 아들이 집안일에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

주말 설거지를 둘러싸고 투닥거리던 남편과 아들이 나란히 거실에 앉아 빨래를 개기기 시작한다. 누나와 엄마의 스타킹과 속내의까지 착착 각을 세워 접은 뒤 각자 방 서랍까지 배달하는 것으로 빨래 개기기는 끝난다. 앞으로도 집안일 훈련은 쭉 계속될 것이다. 내 며느리가 국 끓이고 생선 굽고 나물 무치는 멀티태스킹의 현장에서 내 아들이 숟가락 하나 놓지 않는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 '아들 잘 키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런 공치사를 며느리로부터 받고 싶다. 그 날이 오면, '웃어라, 명절' 캠페인은 역사적 조크가 되고 말겠지. **암**



박어진 ● 올해부터 이사로 민우회와 함께 하십니다. ^^ 한겨레신문에서 칼럼(2050여성살이)에 연재하고 계세요.

특 집

2008 총회스케치 신년인사



따뜻하게, 뿌듯하게, 친근하게

민우회를 만나는 시간

조희정 ●

‘수’는 토요일에 왜 모임이 있는 거지? 안가면 안 되나? 나는 뭐~ 우리 모임 외에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쓸스러운 장소에 앉아 있는 것도 어색하고... 챙겨 입고 나가는 것도 귀찮는데...’ 선뜻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처음 총회에 간 것이 4년 전이다. 그 곳에서 진주, 광주, 원주 등 먼 곳에서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올라온 회원들을 보았다. 서울에 있으면서도 비비적거렸던 내 모습이 미안했다.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큰일을 했다는 뿌듯함으로 칭찬받고 싶었던 마음이 어느 해부터 인가 보이지 않는 손의 수고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물 밑에서 실 새 없이 다리를 움직이고 있는 백조처럼, 한 까풀 벗겨 보면 비슷한 방식의 총회 진행 형식인데도 ‘총회가 그렇지 뭐~’라는 생각이 불쑥 떠오르지 않을 정도이다. 작은 조직이 아닌데도 꼼꼼하게 정리한 일지부터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나하는 놀라움과, 생활에서 느끼는 아쉬움을 운동으로 만들어가는 열정도 그렇다.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여성 단체활동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무색하게 민우회 상근자들은 따뜻하다. 입구에서부터 건네는 눈빛과 인사

- ① 으샤으샤 열심히 노동중
- ② 노동속의 유희!
- ③ 책 나왔어요!



의지밀에 선물은 들게요~



선물
찾았어요!

- ④ 의자맡 선물찾기
- ⑤ 올해회원실천활동선정
- ⑥ 오옷~푸나는 기표소
- ⑦ 우리모두 잘했어요!
- ⑧ 김경애 감사님, 윤정숙, 이안실, 하승창, 박어진, 송호창 이사님



가 그렇고 투표소를 대여해 온 꼼꼼함이 그렇다. 총회가 열리고 마칠 때까지 일과의 만남만이 아닌 사람들 간의 관계가 느껴지게끔 웃음과 눈물을 만들어 내는 점도 그렇다.

이번에도 그랬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 동의와 제청이 외쳐지다가 PPT화면 속에서 작년 총회 때 모두 모여 찍은 사진이 보여 졌다. 사진 속 회원들의 얼굴이 흑백에서 컬러로 하나 하나씩 보이더니 민우회 회원 모두에게 회원 상을 준단다. 상품은 우리가 앉은 의자 밑에 있다고. 부산히 허리를 숙여 찾아낸 상품인 레모나 하나 보다 일일이 붙여 놓은 수고가 회원들에 대한 애정으로 느껴져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 몇 년 전 대표들을 한꺼번에 보내면서 쏟아 내던 눈물이 이번에도 보여 졌다.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최명숙 공동대표를 정책위원장으로 보내는 마음의 무게는 무겁지만 가볍게 보내려고 애써 명랑하게 만들어진 영상을 통해 대표에 대한 애정이 절절히 느껴져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총회를 통해서 민우회를 본다

총회다운 복장을 하고 왔으며 대표를 칭찬하다가 작년 총회때도 입은 옷이라고 농담을 던지는 사회자의 멘트에서 친한 사람끼리 느낄 수 있는 허물없음이 나도 같이 느껴지고, 사업보고와 감사에서 보이는 충실한 1년 살림이 내 살림 같아 뿌듯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원들도 총회 때마다 보다 보니 인사를 일일이 하지는 않았어도 아는 사람을 만나듯이 익숙하다. 고생길이 험한 직책에 다들 책임감으로 떠밀려 온 거면서도 권력의 중심부(?)에 서겠다며 정견을 발표하는 대표와 이사후보들의 유머도 즐겁고, 이사와 감사 후보자들이 100% 동의로 선출될까봐 걱정되다가 같은 걱정을 한 듯한 1표의 반대가 반갑다.

민우회를 통해 나를 본다

1년 동안 묻어서 보낸 내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총회 참석하고 있는 시간 동안은 새로운 1년을 계획할 수 있는 자극을 받는다. 참석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기도 한다. 민우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주는 민우회 회원에 대한 기대감에도 부끄럽지 않는 성장을 민우회와 함께 하고 싶다. **암**

조희정 ● 미디어운동본부 회원



2008년, 민우회에 펼쳐질 재미난 사업들은?

박봉정숙 ●

3년째 사업계획을 쓰려고 보니 민우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매년 다른 사업목표와 계획이 나오다니, 참 고민도 아이

디어도 많아 먹고 싶은 것도 많을 조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오로지 회원들의 크고 작은 정성들만을 모아 2억이라는 이전기금을 만들어내고, 우여곡절 끝에 20주년 운동사 '여성운동 새로 쓰기'도 출판하고, 회원들의 수필집 '여자들의 유쾌한 질주'도 묶어내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뻔 하게 하고, 비전위원회를 꾸려 조직적 비전도 대략 그려보는 아주 멋진 한해를 보냈습니다.

즉, 드디어 20주년의 해가 지났다는 것이지요. 이제 심땀으로 끝나는 해는 앞으로 십년 뒤에나 오는 것이죠. 다행입니다.

화려한 변신은 못했지만, 주제파악도 대충 끝냈고 이제 할 일을 미련없이 쭉욱 해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민우회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만들어보는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도 10년 만에 들어섰고, 일이 아~주 재밌어 질 거 같습니다.

의욕으로 충만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 것 같아 밥을 안 먹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 민우회도 새로운 임원진을 탄생시킨 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관습에 물음을 던지며, 정상성에 도전하고, 차별에 저항하며, 소통으로 변화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민우회스럽다'는 신조어로 만들어지는 그런 2008년, 기대해봅니다.

우선 그간 여성운동의 차별철폐운동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차별 문제를 담론화하고 이슈화하는 반차별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채택하여 가족, 건강, 노동 등 다영역에서 구체적인 일상을 통해 실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구린 주례는 가라(가칭)' 캠페인. 사실 공장처럼 찍어내는 결혼식도 지겹지만, 특히 괴로운 건 주례. 도대체가 식당에서 주례를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밥이 얼른 먹고 싶어서 먼저 식당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신경에 거슬리는 온갖 차별적인 불편한 언사들. 심지어 결혼식장에서 주례도 빌려준다는데... 주례, 어디 한번 물어보자구요, '모두 괜찮아요??'라고.

이런 활동은 어떨까요. 애 낳으면 마치 애국자인양 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모두의 출산을 기뻐하나요? 누구나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권리, 고생했다고 위로 받을 권리,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선택으로 존중받을 권리,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따져보려 합니다. 2008년, 비혼모의 문제를 건강, 가족 이슈 측면에서 접근하여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결혼 밖에서, 혹은 이성애 밖에서 독립적으로 아이를 낳고 또는 기를

수 있는 권리, 그것은 우리 모두가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도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추석이 또 남았죠? 웃어라, 명절 설명이 필요없는 캠페인이죠. 올해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제 2의 웃어라~명절 캠페인을 진행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이면 날마다 오는 주제입니다. 차별하면 나도 한 차별한다, 빠질 수 없다고 늘 줄 서 있는 차별, 바로 비정규직 차별문제입니다. 신분화 되어버린 비정규직 차별문제, 더군다나 올해는 더욱 기대가 가지 않습니까? 기업프렌들리와 이 문제해결은 참 같이 가기 어렵거든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이야기를 풀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표입니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의 틀거리를 다양화하여 전체적인 외연을 확장하려 합니다. '한국' 여성민주 '회'. 따옴표 부분은 우리의 이미지를 '구리게' 하는 범인들입니다. 설마 이름 때문에 향후 50년을 책임질 새로운 세대들이 민주회를 저어하겠느냐 하시겠지만, 다 이름 때문이라고 믿고 싶은 바람이 좀 보태진 거 빼면 한 20%는 맞습니다. 다변하는 시대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와 문을 만들어놓는 것, 문턱의 층을 소통할 수 있는 눈높이로 설치하는 것, '함께하는 여성운동', '참여하는 여성운동'을 실천하는 기본 출발자세일 듯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만나는 공간으로 생동감 넘치는 여성주의 커뮤니티, 민주youth네트워크를 시도합니다. 향후 5년 내 안정화, 전국조직화를 내다보며.

또한 민주회가 이사 가는 지역, 바로 마포조. 이전이 곧 운동이라 했습니다. 마포지역여성모임, 마포에 사는 주민여러분, 저희가 갑니다. 기다려 주세요, 마포FM과 연계하여 온라인 민주회 라디오 방송을 추진합니다(아직 마포 FM은 모릅니다. 췌).

세 번째, 2008년은 호주제폐지 후 새 신분등록제가 시행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올해부터 엄마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본인을 중심으로 편재됩니다.

딸이 결혼하면 호적에서 파지는 거, 이제 없습니다. 나 한 명의 신분증명을 하려면 온 집안의 상황이 공개되어야 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느냐를 가장 일차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호주제 폐지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가치, 지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삶에서, 생활에서 이 신분등록제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입된 신분등록제가 빵구가 많습니다. 부족함 점들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사회의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0번지				
구분	상세내용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제 3조제1항				
구분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이철수(李鐵水)	1970년 01년 01월	7000101-10000000	남	순수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출생	[출생장소]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0번지 [신고일] 1970년 01월 15일 [신고인] 부				

위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07년 10월 11일
전라남도 여수시장 당사삼

한편, 올해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이 만들어진지 10주년입니다.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 참 많이 들어왔겠죠? 상담 분석해보고, 예방교육 현황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예방교육'의 실효성, '직장내 성희롱' 개념 등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민주회 여성노동운동 20년 심포지엄하면서 논의되었던 직장내 성희롱의 쟁점들을 올해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고 논의하여 향후 방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러한 활동계획들이 바로 세 번째 목표, 여성

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발굴에의 노력의 실례들입니다.

네 번째,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빠른 대응으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고,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대안적인 여성정책을 모색하고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에, 벌써부터 뽕뽕입니다. 이 활동은 계획으로 안 잡을래야 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섯 번째, 각 부설·기구들의 발전입니다. 미디어운동본부는 올해 민우회 본부 사무실과 공간 분리를 하게 되어 더욱 독립적 활동이 강화되는 한해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강화 및 조직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한해이죠. 미디어운동본부 1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환경이 참으로 걱정되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매 해 미디어운동본부가 전문적으로 확실하게 해내던 영역을 더욱 강화함(성평등 모니터링, 나쁜프로그램 선정, 수용자의제 공론화 등)과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맞선 새로운 활동을 더욱 힘차게 해낼 것입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소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셨죠. 이임혜경(오이) 소장. 짹짹! 박수도 쳐드렸으니 더욱 의욕적으로 출발하실 것이구요. 작년에 이어 '검·경찰 이렇게 할 수 있다' 프로젝트2를 진행합니다. 검찰, 경찰서, 법원. 기다리십시오. 경찰 조사 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생존자 권리찾기를 위한 경찰서 동행지침서 발간, 경찰과 함께 해보렵니다. 이도 아직 경찰청은 모르는 일이니, 쉿! 가해자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심화제작, 교육진행자워크숍으로 가해자교육에 한 발 앞서는 민우회를 준비할 것이구요. 더 많은 공부방 아이들과 성교육도 진행하려 합니다.

민우회의 자랑, 여성민우회 생협! 가장 근본적이지만 생활적인 여성생태주의 운동. 먹거리를 사먹는 것이 곧 운동인 시스템. 올해도 함께 먹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동지, 조합원 3000

명 확보, 이용고는 100억원 달성, 그리고 생협 매장 4곳 더 개점!!!! 껌입니다요. 여러분만 함께 하신다면!



자, 그건 기본이지~ 하는 활동들보다 올해 특별하게 준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습니다. [함께가는여성]이 재밌게 나올 것이라든가, 새끈한 교육이 많이 열릴 것이라든가, 휴피와 온라인소식이 더욱 발빨라 질 것이라든가, 이전을 앞두고 역사를 남기기 위한 기록행진은 계속 될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 2008년 이사 가야 합니다. 이전기금 마련을 위해 4개 단체가 함께 준비하는 콘서트와 서화전이 상반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두둥~ 기다려 주시구요, 올해 회원확대 목표, 총 4000명. 조합원을 제외하고 1000명입니다. 회원가입서, 챙기세요! 작년 2007, 민우회원이라면 모두가 함께 했던 생활속 실천운동 '기꺼이 불편해지기'. 스스로 뿌듯하고 남들이 알아줘서 더욱 뿌듯한(^)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올해 2탄이 계속됩니다. 총회에서 올해 이것만은 집중해서 확실히 해보자고 결의한 3가지 '기꺼이 불편해지기'를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

기꺼이 불편해지기

1. 비윤리적 기업 물건 안사기(현재는 이랜드입니다.)
2. 장비구니 사용하기
3. 면월경대 사용하기

박봉정숙 ●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민우회와 함께하는 새 임원진을 소개합니다~!



박어진 (본명 정경아) 이사

영자신문 The Korea Times
기자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한
겨레신문 칼럼리스트로 <2050
여성살이>에 연재하고 계십니
다. 작년 12월에는 그동안의 칼

럼을 묶은 책 「나이 먹는 즐거움」(한겨레출판)을 출간
하시고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죠. 글에서
보이는 명량한 감수성을 민우회에 나누어 주시길!

“엄숙하지 않고 유쾌발랄한 총회, 민우회의 평소 분위
기와 다를 바 없겠죠? 감사드립니다. 함께 가게 되어
기대가 큼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차차 고민
해 보겠습니다.”



유선영 이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강사,
한국방송학회 감사로 계셨고
지금은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
위원과 (사)여성커뮤니케이션학
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민우회 이사로 활약해 주셨지요?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

“민우의 활동가들은 우리 사회의 추한 속살을 직시할
만큼 강하고, 그토록 오래 열심히 3D 업무를 감행할
만큼 독하지만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아름다운 사람들
입니다. 그러나 2008년이 여러분을 더 독한 사람으
로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송호창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
터 부소장과 상임집행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
임 사무처장을 맡고 계십니다. 민우회로서는 새로운
만남이지요!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박영란 이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연세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강남
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
으로 민우회의 새 영역인 복지과제에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민우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
지와 여성인권, 성평등 사회의 과제를 고민하면서, 지역의 여성복지 활동
에 참여하겠습니다.”



윤정숙 이사

민우회 활동가와 대표로 활동하시면서 오랫동안 민
우회에 열정을 불살라 주셨던 윤정숙 선생님, 올해
도 이사로 민우회와 함께 해 주십니다. 지금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로 계시지요. 민우회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감사드립니다.^^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기만의 힘을 찾아나서
자구요”



이인실 이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
위원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 여
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구요,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로 계십니다. 전혀 경제적

으로 도움 안 되는 민우회 이사직을,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역시 맡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자녀 성인이 된 민우회, 더욱 성숙해지고 하는 일
마다 불같이 일어나길!”**



김경애 재정감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한
국여성연구소 이사 등으로 활
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지요, 작년에 이

어 올해도 민우회 감사로 봉사^^해 주십니다. 숫자
에 약하시다는 김경애 선생님의 ‘구수한 재정감사’를
또 보게 되어 좋아요~^^



김경희 사업감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여성개발원 등에서 연구위
원으로 활동하셨구요, 지금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로
계십니다. 민우회에는 옛날부

터 정책위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구요, 이번에 발간
된 민우회 20년사 <여성운동 새로쓰기> 집필위원장으
로도 함께하시면서 고생해주셨습니다.



이재경 이사

한국가족학회 부회장,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협력담당
관으로 활동하셨구요, 현재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한국여성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02
년부터 오랫동안 민우회 이사로 계시면서 많은 도움과
자문을 주고 계시지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승창 이사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진행자, 시민방
송 RTV 상근이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지금은 함께하
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한국인권재단 이사로 계십
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민우회 활동에 신선한 감각,
새로운 바람을 입혀주시길 기대합니다.

**“민우회는 제게 있어 또 하나의 새로운 무대인 셈입니다. 새 무대는 언제나
낮선 법이죠. 낯설음은 긴장감도 주지만 기대도 줍니다. 그런 마음으로 작
지만, 보탬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님들!!

2005년부터 3년 간 정말 열심히 활동해 주신 유경희, 권미혁, 최명숙 대표
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숙 선생님은 이제 정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민우회와 짝꿍~ 함께 하시구요, 유경희 선생님이 맡으셨던 상임대표
직은 권미혁 선생님께 바톤 터치~! 그리고 새로 합류하시는 김인숙 선생
님(전 동북여성민우회 대표)은 그 든든함과 넘치는 에너지로 새로운 활기
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21주년, 새로운 도전 앞에서

이번 2008년 여성민우회 정기총회를 통해 세 대표와 8명의 이사, 2명의 감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저희 임원진들은 뽑아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도 그 무게 때문에 한편 두려웠습니다. 2만 여명의 회원, 10개 지부와 생협, 그리고 부설기관인 성폭력상담소와 미디어운동본부, 그리고 3개의 단위생협과 각 지부의 부설기관들을 합치면 민우회도 이제 꽤 큰 살림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민우회를 옆에서 지켜보며 성원과 질책을 해주는 분들까지 합하면 우리의 운동이 단순히 우리만의 것이 아님에 저희 임원들은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립 후 20년이라는 역사의 커를 보존하면서도 21주년을 맞아 또 다른 층을 쌓는 것, 그리고 평동시대를 마감하고 '마포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어서 혼쾌한 기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리더십 논의가 유행인데요, 사실 저희 대표들이 특별한 자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별로 가진 게 없어도 회원으로 시작해 대표와 임원이 되는 게 민우회의 힘입니다. 민우회는 잘난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의논하고 합심해서 같이 만들어어나가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마포로의 이전도 여러 어려움을 이겨야 가능합니다. 몸집이 커진 만큼 우리끼리는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운동이 혹시 관성적인 것은 아니었나 하는 반성과 함께 먼 앞날을 염두에 둔 발전계획도 짜야 합니다. 새 세대의 민우회 활동가와 리더십도 길러야 합니다.

저희 대표들은 사실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도 각 부분에서 하고 있고 아마도 잘 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흠어진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구슬들을 조금 더 예쁘게 꿰는 데 저희의 힘을 쏟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여태 보내오던 성원보다 조금 더 보내주시면 보다 힘이 나겠지요. 많이 찾아주시고 손도 많이 잡아주세요.

그럼 민우 식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권미혁, 유경희, 김인숙 올림

▶ 11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 M.net <Wide 연예뉴스> '귀신도 모르는 이야기 하지마'



미디어운동본부는 개방되는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나쁜방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으로는 M.net <Wide 연예뉴스>의 '귀신도 모르는 이야기 하지마(鑿知摩)'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이유는 1. 연예인들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2. 동성애자 인권침해 3. 검증되지 않는 '운명론'의 일반화 입니다.

▶ 민우회 이전기금마련 일일호프 <술마시●, 땅파●, 이사가●! 고고씽!>

이시기금마련 부족사태해결을 위한 일일호프가 회원님들의 든든한 지지로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티켓구매로, 자원활동으로 큰 도움 주신 민우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7년 12월 19일, 종로



▶ 설맞이 이랜드집중불매 액션!

대목인 설을 맞아 반노동 나쁜기업 이랜드에 대한 불매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000여명의 노동자들을 무작위로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화, 노동조건 악화를 공고히하는 이랜드 물건을 사지 말고, 계열사에도 가지 말아요! 2008년 2월 2일 홈버너 1호 시흥점 앞



▶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 운동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고, 수정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의올바른 제정을위한반차별공동행동(준) 주최)



2007년 12월 10일,

2008년 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이랜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여름부터 여러분들이 이랜드 불매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주신 한 알 한 알의 포도송이 카드를 모아 연결하는 "이랜드 불매 포도송이 넝쿨 만들기" 퍼포먼스로 이랜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여성비정규 노동자의 희망을 염원하였습니다. 2008년 1월 17일 오전 10시, 인수위원회 앞



▶ 새해맞이 상근활동가 '기충진' 엠티

상근활동가들은 다사다난 할(?) 한 해를 예감하며,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짐하는 엠티를 다녀왔습니다.

'나디아와 달개비의 만찬', 기적의 침술사^^) 상담소 오이소장의 '오이마사지', 피튀기는 가족오락관계기 등을 하며 즐겁게 쉬고 왔습니다. ^^ 2008년 1월 28~29일, 속초

‘신성장연합’에 대응하는
복합적인 ‘신평등연합’을 향하여

‘신보수 정권’ 시대의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조희연 ●

대중의 분노를 기다리자

대선도 이제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져 간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가 펼쳐 놓는 여러 가지 의제들에 일희일비하면서 보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과인 것 같다. 필자는 어느 시민운동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차피 1년은 좀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장기적인 비전도 생각하고 시민운동의 전열도 천천히 가다듬는 기회로 삼자.’ 그리고 ‘대중들이 분노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분노해서 분노하도록 선동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대중의 분노를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놀자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5년 후의 정권의 향방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사회가 이명박 정부 시대의 보수세력을 뛰어넘는 풍부한 사회적 비전을 내포하는 집단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보수정권의 연속성과 차별성

한국에서 1961년을 기점으로 개발독재시대가 열렸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개혁시대가 열렸다고 한다면, 민주개혁을 둘러싼 복합적 갈등을 경과하여-2007년 12월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신보수 정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신보수 정권의 성립은 분명 한국정치변동의 맥락에서 보면 ‘보수의 진화(進化)’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 신보수는 구(舊)보수와 한편에서는 차별성을 다른 한편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별성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신보수 정권은 경제적 측면에서 초기산업화 단계의 개발독재와는 ‘구별’되는 포스트-독재 정부이고, 또한 과거의 구 반공주의적 보수나 ‘안보형 보수’와는 구별되는 ‘시장형 보수’ 혹은 ‘신자유주의적 보수’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보수는 구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주의’와 ‘성장주의’를 ‘신개발주의’ 혹은 ‘신성장주의’라는 형태로 정확히 계승하고 있으며 또한 탈규제와 시장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성격으로서의 ‘친기업주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새로운 급진적 희망은 무엇인가

이제 신보수 정권 하에서 개혁·진보는 다시 ‘저항적 진보’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신보수적 지배에 대응하는 저항적 진보로서, 반독재적 진보나 민주개혁적 진보를 뛰어넘어, ‘신보수적 희망’을 ‘대체’할 수 있는 ‘급진적인 새로운 희망’과 그것을 표현하는 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향후 신보수적 경제담론에 대응하는 대항담론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경제담론에 대응하는 대항 경제담론은 ‘사

● 쟁점과 현안

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담론으로, 친기업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 담론에 대응하는 대항담론은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국가' 혹은 '사회적 공공국가', '사회적 지속가능국가', '반신자유주의적 사회적 공공국가'와 같은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담론적 대치선은 보수의 핵심담론인 '선진화' 담론과 관련시켜 볼 때, 신보수 정권과 보수세력이 그동안 부각시켜 온 선진화는 '가진 자들을 위한 선진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것은 사실 다양한 언어들로 이미 표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항담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차별없는 성장', '사람 중심의 경제' 등으로 표현된 바의 보다 급진적인 희망이어야 한다. '선진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가진 자들을 위한 선진화'에 대응하여 '민중들과 못 가진 자들을 위한 선진화', '공생(共生)적 선진화'의 비전, '박정희 식 선진화'가 아니라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선진화'여야 한다. 이것들이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담론화되어야 한다. 신보수의 프로젝트가 가져올 문제점들에 대한 대중들의 체험이 급진적 희망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경제는 '고성장'의 문제로 인식되고 보수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경제에 조응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혹은 경제 내부에 최소한의 '공생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이다. 즉 세계 12대 경제대국이 일부 대기업 중심의 가혹한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오히려 중요하다. 유동적인 세계경제 내에서 한국경제의 '리스본 모델' 식 전환이 필요하고 세계경제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사실 이런 점에서 한국경제가 다른 경제대국들에 비해서 지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배제적' 구조로, 또한 경제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필자는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갖지 못한 경제'로 표현한다. 이러한 고성장 중심의 보수담론에 대해서 우리는 정면으로 맞서서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신평등연합과 공공성

이명박 정부의 성립이 '긴 신보수시대'의 서막인지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불안정한 정권교체'의 패턴을 말해줄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진보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면, 그것은 신보수 시대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복합적 평등연합'을 구성해낼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복합적 신평등연합은 신보수적 기조에 대립하는 '(사회)공공성'을 옹호하기 위한 다종다양한 저항들이 수렴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신

‘선진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가진 자들을 위한 선진화’에 대응하여
 ‘민중들과 못 가진 자들을 위한 선진화’,
 ‘공생(共生)적 선진화’의 비전,
 ‘박정희 식 선진화’가 아니라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선진화’여야 한다.
 이것들이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담론화되어야 한다.

보수정권은 신개발주의·신성장주의를 전면화하고 시장 경쟁의 원리를 대중들의 전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점에서 한국사회는 ‘경쟁의 부족사회’가 아니라 ‘과잉경쟁사회’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경쟁이 내포하는 ‘합리성’을 뛰어넘어, 과잉경쟁으로 인해서 그 합리성이 파괴되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시장경쟁원리의 확산은 자연히 대중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잠재적으로나 현재(顯在)적으로나-다양한 저항들을 출현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저항들은 결국 대중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사회)공공성을 실현하고 확장하고 옹호하고자 하는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성장연합에 대항하는 새로운 평등연합은 다양한 대중들의 요구들을 수렴하는 (사회)공공성연합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성장연합이 반독재 중도리버럴정부에 의해 이반된 다양한 대중들의 요구를 수렴-성장 경제담론에 의해 포획함으로써-하는 기초 위에서 출현했듯이 말이다.

신평등연합에 ‘못보던 사람’들이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평등연합은 반독재와 민주 개혁으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대중들의 요구와 이해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의제연합’, 새로운 ‘요구연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주체성이 발현되고 다양한 새로운 개인적·집단적 주체들이 나오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 한 예로, 반독재 연합과 민주개혁연합이 ‘대한민국 국민연합’이었다고 한다면 신평등연합은 외국인노동자도 포함하는 것이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기존의 진보주체들은 새로운 개방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맨날 운동하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신평등연합에 나오도록 각자의 운동영역에서 어떻게 새롭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자. 그래야 우리의 운동이 새롭게 성공할 수 있다. 신보수 정권시대의 등장을 아시아 민주화의 일반적 경로에서 보면 ‘퇴행’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새로운 경로로서의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6년 필리핀 민주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게 선도적인 민주화 사례였다고 하면, 이제 한국의 신보수 정권 시대의 개막에 대응하여 개혁·진보세력은 아시아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할 과제 앞에서 있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안**

조희연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http://dnsm.skhu.ac.kr>, chohy@skhu.ac.kr

'FAMILY'



#1, #2, #3

난나 ●



#1년 전, 이 맘 때쯤 영국대사관에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면서 1년 간의 타향살이가 가능한 걸까 의문을 품으며 다시 비자를 신청했더랬지요. 자원봉사자격으로 주어지는 비자였는데 서류, 증명서는 기본이요 에세이까지 써가면서 두 번째 신청으로 비자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발을 디디게 된 이곳은 마치 내가 원래 이곳에 살았던 마냥, 이제는 또 하나의 나의 동네가 된 듯합니다.

#처음 얼마간은 런던의 한 가정에서,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의 방과 후 생활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와의 소통이 만만치 않은 문제였는데, 전형적인 런던 중산층 가정의 문화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했지요. 무엇보다 아이의 할머니와 아이의 부모가 보이는 관계의 지형을 보며 신기해했더랍니다. 부엌에서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때마다 부부는 할머니께 알리지를 않습니다. 할머니가 불일을 보고 식사 중 늦게 들어와도 식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노인을 홀대하는 버릇없는 며느리인가요? 알고 보니, 모든 생활은 두 가정으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집 값 저리가라는 런던의 부동산 사정 때문에 아이의 부모가 할머니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고, 자산을 반반 나누어 분담하게 된 배경으로 한 집의 공간과 생활은 두 파트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찬장에서, 자신의 냉장 칸에서 자신만의 건강식을 만들고 자기 응접실에서 손님을 접대합니다.

그렇다고 독립적인 생활이 냉랭한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닌 듯 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마주치며 오늘 하루 어땠는지 서로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는 평생교육원에서 열리는 철학 강의 이야기를 하고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학교생활, 직장 일을 친구에게 무던히 이야기 하듯 그렇게 시어머니와 마주합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인 생활 양상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있지만 함께 지내는 친구들 대부분이 독일에서 오다보니 오다가다 한 두 마디 독일어도 배웁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사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엄마의 남자친구. 엄마의 남편(하지만 아빠는 아닌).

이런 단어가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함께 지내는 친구의 1/3은 부모가 이혼 상태입니다. 부모의 이혼이 늘 부정적으로만 비춰지는 사회에서 자라온 나로써는, 가끔씩 드러나는 나의 우울 기질의 대부분은 가족의 이력에 바탕을 둔다고 생각하는 나로써는, 놀랄 일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가족으로부터의 그늘을, 그네들에게서는 보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어렸을 때 엄마를 버린 아빠와 그의 여자친구가 방문하여 즐거운 한 때를 보낸 나의 옆방 친구는 나의 연구 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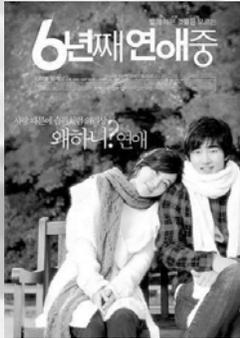
#휴가를 떠납니다. 1년간 무보수로-약간의 용돈을 제하고- 나름 열심히 살아온 스스로에게 선물과 심을 주고 싶습니다. 3월 중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며칠간 스페인과 독일을 돌아보고 오렵니다. 스페인에서는 여기 영국에서 보기 힘든 태양을 실컷 보고 싶고 독일에서는 함께 지내는 독일 봉사자, 그 아이의 집과 동네를 둘러보고 싶습니다. 항상 맑고 힘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 친구는 주인 없는 빈 방에서 머무르라고, 기꺼이 나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며칠 묵을 수 있을 거라 합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내가 그 집에 가서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야 하나? '이분의 여자 친구의 딸의 친구?'



#수도꼭지 제대로 잠그지 않아 물 샌다고 열 살 아래 친구에게 타박을 듣고, 사람이 없을 때는 복도에 불을 켜면 좋겠다며 평소에도 복도에 불을 꺼두는 친구들에게 한 수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과,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경험은 나를 풍요롭게 합니다.

돌아가서 무얼 할까나는 질문이 쇄도하는 요즘, 돈을 좀 벌어 세계여행을 하고 그때 다시 너를 만날 거라는 나의 대답은 그리, 맹랑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요! **암**

난나 ● 대안학교 교사로의 경험을 뒤로하고 영국으로 떠난 그녀는 종종 멋진 핸드메이드 선물과 사진을 보내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경험으로 가득 차길 바라요



최악의 조합, ‘사랑하는 친구’

6년째 연애중 2008, 감독-박현진

신나 ●

6년째 기념일에 만난 두 연인의 테이블. 예쁜 초와 와인, 선물, 갖출 것은 다 갖췄다. 이제 활짝 웃으며 “사랑해”를 속삭이고 기념사진 한 장 남기면 되는데... 어라, 이 두 남녀의 표정이 심란하다. 웬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지, 꼭 잡지 않으면 와인이고 선물이고, 사람까지 날아가 버릴 것 같다. 이렇게 바람 잘 날 없는 6년째 연애가 시작된다. 6년째 기념일에 차를 마련한 기념으로 남자의 차 안에서 카섹스가 벌어진다. 뭔가 시작되려는 찰나, 여자의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다. 아랑곳 않고 제 욕심 채우기에 바쁜 남자를 밀쳐 결국 분위기를 망가뜨린 다음 날, 여자는 병원에서 가슴을 찍어누르는 검사를 한다. 가슴에서 발견된 조그마한 혹, 그리고 둘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영화는 ‘짧게 해 본 것들은 모르는’, 그러나 6년쯤 해 본 이들은 너무 잘 아는 연애사를 다루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엄청 꿀꿀해진다. 전형적인 6년차 연인들의 관계를 이리 자연스럽게 보여주다니, 처절할 지경이다. 사랑의 유통기한은 얼마며, 그 이유는 호르몬의 화학작용이 어찌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둘은 이미 ‘가족같은’ 존재다.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받는 상품권은 엄마한테서 받는 용돈과 다르지 않고, 굳이 알리지 않고도 여자친구 어머니 덕의 수도를 고치고 바닥청소를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감독은 이 6년차 연인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친구’는 더욱 아니다. ‘딸 같고 동생 같은’ 여자친구는 이제 ‘맛있지’도 않고 여자친구가 가슴이 아픈 바람에 섹스를 못하게 된 불만은 진짜 ‘친구’에게만 털어놓는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추진하는 남자친구 어머니에 대한 불만도 진짜 ‘친구’만이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6년 된 ‘사랑하는 친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단어들의 조합이 되어버린다.

둘은 오래된 연인답게 서로를 너무 잘 안다. 각자의 사적인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 따로 살지만, 통화를 하면서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숨겨둔 와이인이 어디 있는지, 처음 본 칫솔이 언제 등장한 것인지도 다 안다. 그러나 둘은 정작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왜 옆집으로 이사를 온 것인지, 왜 둘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 하는지, 평생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하는 이야기는 계속 미뤄진다. 둘 사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이야기는 다른 곳을 통해 분출하고, 그 결과는 예정된 수순을 밟는다.

이 영화는 시종 여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남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대사들을 늘어놓지만, 그것은 여자가 상대방의 행동을 조용히 주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남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된 연인들의 비틀린 연애가 깨져가는 상황을 그리면서 감독은 남자가 온갖 '추태'를 다 부리게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걱정선을 넘지 않도록 면죄부를 준다. 내가 답답해지는 것은 이 지점에서다. 어쨌든 '추태'를 부리는 쪽이 더 나빠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바라만 보는 여자의 입장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슴 속에 '혹' -뭔가 답답한 구석-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여자의 시도는 거기서 멈춰버렸다. 그녀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회피하고는, '나 상처받았어~' 하면서 서둘러 '혹'을 떼어버리고 말았다(마음의 혹 말고도 극중에서 가슴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장면이 나온다). 표면적으로 그녀는 피해자였고, 그런 믿음이 그녀가 더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동생에게 물어보았다. 결말이 어떤 것 같냐고, 영화는 열린 결말을 채택했고, 우



리는 각자의 구미에 맞는 결말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영화의 결말은 미덕과 악덕을 둘 다 갖고 있는데 '패인(敗因)에 대해서는 분석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미덕과 함께 '(그런 거 다 잊고) 그래도 다시 노력한다면 내가 이 관계(그리고 그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악덕이 그것이다.

난 윤계상이 좋아서 영화관에 갔지만, 한편으론 내 지난 연애사를 돌아보고 싶어서 갔는지도 모르겠다. 앞으로의 연애사에 참고가 될까 해서인지도. (내 지난 연애는 6년의 데드라인을 넘기자마자 영화처럼 끝났고, 현재의 연애는 6년을 앞두고 있다.) 과거의 패인을 분석하는 데 한참 걸렸다. 이런 영화가 지금 나오다니 분하기도 하다. 6년 전에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6년째 연애중이라, 둘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지금 깨지든지, 좀 있다 깨지든지. '사랑하는 친구'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다면 꼭 이 때쯤이다. 내 경험상으로도. 그러나, 패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무리 아깝더라도 지금이다. 요즘 읽은 책 중에서 인상깊은 구절이 있어 옮겨 본다. **앎**

"그러나 졸업식 날 아무리 서럽게 우는 아이라도, 학교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 우는 것은 아니다."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 中

신나 ● 서른 살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 열살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도 훌륭히 해내고 있는 기특한 그녀



한국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태안을 치유하다

— 태안에 다녀와서

히로 ●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이 한국에 내한했을 당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희망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암울한 시대에 환경운동으로 당신을 이토록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끈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제인 구달은 잠시 침묵한 후 인간의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 그리고 가능성을 믿는다고, 어느새 인간은 머리와 가슴을 잇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자연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법을 잊었으나 세계 곳곳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잘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개인이 존재한다고 답하였다. 과학과 이성이 좋은 쪽으로 쓰일 경우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그러나 이를 정치인에게만 맡기기에 환경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개개인에게서, 우리 모두에게서 이러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패러다임 전환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삼성 선박의 기름유출 사건 이후 하나같이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자원봉사자의 행렬이 속속들이 태안으로 몰려들고 광활한 바다 앞에 개미처럼 오밀조밀 모여 사람의 힘으로 입김으로 행동으로 진심으로 노력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 이들의 노고를, 열정을, 진심을 무모하다고 하는가? 닦아도 닦아도 표 하나 나지 않고 끝이 없을 것 같은 작업, 예전처럼 청정해지기를 빌고 또 빌어 보아도 검은 기름 덩어리가 뒤엎은 자연의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러나 태안에 가서 여러 환경단체와 자원봉사자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우리 모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임을 깨달았다. 환경주의와 여성주의적 요소가 많이 묻어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물질문명의 세계가 대재앙으로 말미암

아 얼마나 남지 않은 청정의 땅을 서로 약탈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를 힘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황제의 딸 크사나, 그리고 어와 대조적으로 희생과 만물의 교감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경종을 울리며 세상을 정화시키는 나우시카의 이야기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인간, 인간을 사랑하는 자연 속에서 자연에게 준 상처만큼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인간의 진심 어린 의도와 마음 그리고 비록 돌이키기 어려운 기름범벅이 된 곳임에도 눈부신 파란하늘과 넓디넓은 실로 경이로운 바다 앞에서 자연은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사는 현실은 영화의 스토리와 별다를 바 없다.

우리는 태안사태를 통해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님을, 그리고 진심으로 믿을 경우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인 구달이 말한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과 변화의 가능성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개개인의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말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거만하게 자연을 학대했는지를 느끼고 있는 것일까? 현대기술로는 어렵기에 인간의 손으로만 해야 한다는 정화작업에 참여하게 되는 한 손길, 두 손길이 모여 무려 100만 명을 넘어 놀라운 변화를 일구고 있으니 말이다. 실용주의와 위계의 사다리에서 정복을 미덕으로 삼는 크사나와 같은 세력이 만연한 세상속이지만 좋은 에너지가 모아질 때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노력의 성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 답답해도 그것이 우주의 섭리이자 하나의 과정임을 자연은 침묵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번 일이 보다 자연친화적인 사회로의 경종을 울리는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인간과 자연의 소통거리가 좁혀지고 인간의 영혼과 이성을 잇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언론의 집중 조명이 사라진 후에도 태안으로 가는 도움의 손길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업**

히로 ● 민우회와 함께 태안 갈 날을 상상하며
신나하는 자칭 페미니스트, 환경주의자 히로

태안에 가실 분을 위한 조언!

- 따뜻한 차 담긴 보온통 필수! 속이 냉하면 더 춥고 힘들더라고요.
- 내복 입고가면 좋아요!
- 기업체에서 후원하는 점심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회용품으로 점심이 지급되더라고요. 그 일회용품은 다 어떻게 되는가 싶더군요. 싸갈 수 있다면 따뜻한 보온밥 싸가서 먹으면 좋 실 필요도 없고 절약하고 좋아요^^
- 기름 냄새 오래 맡으면 머리가 멍하고 현기증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공해 주는 마스크가 있는데 안경 쓰는 사람은 김이 시려 불편할 수도 있으니 얇은 마스크를 준비해도 편할 듯 합니다.
- 일반 장화보다는 안에 털 있는 스키용 장화가 정말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방수도 되니까요. 일반 장화는 발이 시려 더 춥습니다. 일하시는 곳에서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선택해서 신으실 때 참고하세요^^
- 원유 닦아내는 종이를 나눠주는데 그건 앞뒤를 쓰고도 찢어보면 안에는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하얗답니다. 휴지나 티슈를 분리해 보면 여러 장 나오듯 말입니다. 앞뒤 시켜뭇다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찢어서 안쪽 면도 사용하신 뒤 버리면 더 자원이 절약 될 듯합니다.



리다의 한식조리사 합격기

리다 ●



근무 중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소재로 에세이를 써달라는 내용이었다. 갑작스런 제안이었지만 일단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옆자리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니 의미를 웃음을 짓는다.

한 달 전 우리 직원들은 내가 조리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 눈으로 자격증을 확인하기 전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은 내가 만든 요리를 이미 두 번이나 먹어봤기(!)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리사 자격증에 왜 도전하냐는 질문을 받아왔다. 나에게 조리사 자격증은 생존이며, 취미이며,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이다.

나는 부모님하고 떨어져 산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부모님이 제공해 준 집과 음식, 그 밖에 부모님께 얹혀살으면서 누리는 혜택이 많다.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다가 어느 날인가 문득 언젠간 부모님도 내 곁을 떠나실 텐데 다른 문제들이야 그렇다 치고 나를 위해 밥 한 끼, 반찬 하나라도 차릴 수 없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누군가는 사먹으면 되지 하겠지만 매 끼를 외식으로 해결하기엔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고 조미료 첨가나 인스턴트 식품 과다 섭취 등 건강과 관련한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음식을 만들면 되지 굳이 자격증을 딸 필요가 있냐고? 시도를 안 해 본 건 아니다. 집에서 요리책 보며 요리를 해 본 적도 몇 번 있지만, 예전에 엄마가 내가 만든 요리를 드시다가 하신 말씀이 이렇다.

“사랑하는 딸아, 맛있는 건 참겠는데 된장이 덩어리째 씹히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도 우리 가족한테 한 소리 듣는 건 다행이다.

2년 전에 직원들끼리 스키장에 가서 내가 카레를 만든 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양파는 요리의 끝에 넣어야 하는데 요리 책에 양파 넣는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처음부터 넣은 적이 있다. 직원 왈,

“언니 아까 양파 5개 넣었지? 다 녹았나봐. 카레에 양파가 하나도 안 보여.”

직원들은 2년 전 그 일을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 당시 나는 ‘이젠 칼을 들 때가 되었구나.’ 생각했다.

한식 조리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진다. 실기는 55개의 메뉴 중 2가지가 시험문제로 출제된다. 요리에 문외한이라 학원을 다녔다. 그 당시 수업 듣던 기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수업이 끝나면 각자가 만든 작품을 선생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선생님은 누구의 작품인지 모른 채 하나하나 평가를 해 준다. 20여개의 작품 중 내 것이 단연 돋보였다. 크기도 삐뚤삐뚤, 한 가지 요리에 탄 흔적과 안 익은 흔적의 수많은 절묘함이라니...

어느 날은 선생님이 내 작품을 들더니 화를 버럭 냈다.

“도대체 이 분은 누구세요? 발로 만드셨어요?”

...이러고 있다.

하루는 열심히 칼질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한다.

“자격증이 절박한 건 아니시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실기시험은 매달 응시할 수 있고 필기 합격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면 된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해야 하는데 첫 시험 점수는 42점. 그 이후에도 비슷한 점수로 계속 불합격했다. 32점 받은 적도 있는데 혼잣말로 “과락은 아니네” 중얼거리며 태연해진 나를 보

고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자격증이 절박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해탈의 경지에 이른 건지 나 자신도 의아했다.

작년 7월에 4번째 실기시험 불합격을 끝으로 몇 달 동안 요리공부를 하지 못했다. 8월에 교통사고를 당해 목디스크에 걸려 요리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몸을 우선 회복하고 2008년부터 다시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한 후 시험감각을 찾기 위해 12월에 5번째 도전을 했다.

시험문제는 돼지갈비찜과 북어보푸라기. 두 가지 모두 정확한 치수를 썰 필요가 없어서 나처럼 손이 섬세하지 못한 사람에겐 좋은 기회였다. 82점의 점수로 합격을 한 후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 국가자격증 아니지? 시행하는 곳 어디야?” 등등 도저히 자격증 발급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으나 나는 너무나 큰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아 무슨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날아갈 듯 했다.

앞으로 열심히 다른 요리들을 응용하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맛있는 만찬을 준비할 날을 기다려야지. 그 때 초대하면 올 거지? 

리다 ● 예전 모임인 노동법연구모임 “뜸” 친구들이 리더쉽이 강하다고 리다라는 별칭을 붙여 줬어요. 직장 여성후배들에게 “조직화 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그것이 너 자신과 우리를 위한 무기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민우회에서 배운 가치들을 회사에서 널리 펼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회원모집은 잘 못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녀들의 메디컬히스토리

따우 ●

전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는 건강 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저소득 저학력자들의 건강이 고소득 고학력자들보다 더 나쁘다는 연구결과나 보도를 굳이 인용할 것도 없다. 대부분의 상근자들이 갑근제도 안 내는 민우회의 건강사정만 한 번 훑어봐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A는 얼마 전 눈 많이 내리던 날 엎어져서 출근을 못 했다. 퇴행성 관절염도 모자라, 어르신들이 하실 법한 일은 골라 하는 것 같다. 술 많이 먹는다고 구박 않을 테니 건강하게만 늙어다오

B는 자궁경부염(독해)에 주의할 것 '임' 아님)에 걸려 한동안 병원을 들락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의 불친절한 치료에 놀라 병원출입을 관했다나. B야, 병원 옮겨서라도 마저 치료 받으렴.

C는 집에서 아가들이 잠든 후 밤새 일하느라 눈이 켜해지는 일이 잦아졌다. 내가 일은 대충대충 하는 거라 그랬지!

D는 역시나 밤새우는 일이 잦아졌는데, 술 마시느라 그렇다는 후문이다. D, 이제 나이를 생각하셔야지.

E는 창가좌석 때문인지 손목이 시큰하단다. 그러나 아픈 척 잘 앓고 일만 하는 탓에 사람들은 E가 아픈지 어쩐지도 잘 모른다.

F는 최근 큰 병을 앓았다. 본인의 주장으로는 계속 떡볶이만 먹어서 생긴 병이라는데, 나는 후에도 떡볶이만 먹는 걸 보니 병인은 다른 데 있지 싶다.

G는 역시 병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B랑 손잡고 병원 좀 가시지!

H도 오십견에, 정체불명의 출혈에, 질염에, 안검염까지 자
질구레한 병을 한데 얹고 있다. 착실히 병원에 다니지만 호전
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울 생각을 하고
있다. 그간 담배연기 때문에 잡균이 몸에서 안 자랐던 게 아
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라나.

I는 모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두세 달에 한 번씩
꼭 알아놓는다. 당신도 일 좀 대중대중 하랬지!

J는 프로젝트 결산이 끝났는데도 얼굴이 아직 누렇게 뺨다.
총회 끝났으니 좀 관찮으려나. 고향 집에 자주 좀 보내줘야겠
다(니가 보내내).

K는 연말에 도를 닦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득도한 것 같지
않은 표정이다.

L은 술은 좀 줄인 것 같은데 살은 좀체 줄일 것 같지 않아
서 걱정이다.

M은 늦은 나이에 치아교정을 시작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
고 다닌다고 한다. M의 매력은 그 덧니였다규~! 소심하게 외
쳐 보지만 이미 늦었다.

N은 결산이 끝났는데 왜 아직 다크 서클은 그대로인지 모
르겠다. (이침에 N과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O랑 P에게, 그녀
들의 병력은 몰라 못 적은 데 대한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
씀을 전한다.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인데 아는 게 별로
없어 미안타. 그냥 건강하러니 생각할게요. 좋지?)

Q는 뺏속 아가는 다행스럽게도 건강히 자라주고 있는 것 같
다. 조만간 휴직 들어가면 꽤 오래 못 볼 텐데, 부디 순산하길

이 외중에 몇 안 되는 건강한 상근자 R은 일하기 싫어서 자
기도 아프고 싶다고 울부짖는다. 아야, 없는 사람들은 몸이 재
산이랑게.

S는 연초에 사이버 테러라는 끔찍한 일을 겪은 후 조금 늙
어버린 것 같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야 S에게 못생겼다고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래도 내 눈에 S는 여전히 예쁘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모든 증상들을 호전시켜 주실 것이 틀림
없는 T가 있다. 초급, 중급을 거쳐 고급반이 된 지금은 살
짝 지겨운 기색을 비치기도 하지만, 상근자들에게 침과 땀을
놓아줄 때면 활기가 넘친다. 본인 입으로 배우는 건 싫고
침·땀 놓는 건 좋다고 하니 저 모순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몇 달 더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그러나 본인의
SOS(SOjang Syndrome, 소장 신드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중압감으로 문장구사력이 저하되는 증상)에는 대처방안이 없
는 모양이다.

며칠 지나면 신입상근자 세 명이 출근한다. 이 글은 아
마도 그들이 상근자로서 처음 읽는 <평동 사무실에서>
가 될 것이다. 기운이 넘쳐 보이는 그들이 이 글을 읽
고 지레 겁을 먹지나 않을까 조금은 걱정스럽다.
그러나 동병상련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 외중에 자질구레하게 아프면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새 상
근활동가 여러분, 우리 병약한 몸으로 서
로 위해 가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그러. **안**

따우 ● A부터 T까지 저는 어디 있을까요?



세상과 통하는 법

최정은 ●

첫 아이 임신 무렵 친정에서 농사지으신 감 1박스가 집으로 배달 되어왔다. 먹을 식구도 없는데 이를 어찌... 먹다가 먹다가 복도를 오가는 이웃의 동정을 살폈다. 그땐 정말 이웃이라고는 눈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지낼 만큼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다. 쟁반에 감을 받쳐 들고 이리 저리 눈치만 살폈지만 결국 이웃집 벨을 누르지 못했다. 남은 감들이 썩어 쓰레기가 되었다.

결혼 후 내게 공식적인 도피처였던 내 집이 감옥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내가 지금은 지역 공동체에 매달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첫아이를 낳고 보니 이 녀석은 자폐가 의심될 만큼, 나만큼이나 사람 만나기를 무서워했다. 내가 집 밖을 나서지 못했던 것처럼 아이는 장소를 가리고 낮을 가리고 환경을 가렸고 밤낮으로 울어댔다.

집안에 감도는 공기의 흐름에도 반응하는 극도로 예민한 아이를,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울면서, 울면서 아이를 돌봤다. 그러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 애를 데리고 세상으로 나왔다.

일산지역을 중심으로 두 살 무렵의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의 공동육아 준비모임에 어렵게 발을 들였다. '함께 크는 자연육아'라는 이름을 붙이고 온라인 카페를 열어 온-오프라인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고만 고만한 아이들을 둔 일곱 가정을 시작으로 아이들을 함께 놀리기 시작

했다. 그 이수라장 같은 틈바구니에서 엄마들은 5분마다 터지는 울음소리와 함께 아이를 업고 안고 젖을 물리면서 책을 읽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지금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지만 그때 고생하며 읽었던 책들이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고 본다.

모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민우회 생협이었다. 회원 대부분이 생협 조합원이다 보니 생협 매장은 우리가 회원을 모으는 좋은 현탕 장소였고 식재료 구입 창구였다. 처음엔 단순히 식재료 구입에서 시작되었는데 어느새 생협의 생명 살림 운동에 동감하게 되고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식생활 강사로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일산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교실, 민우회 랄랄라 민우학교, 환경연합 등에서 식품 첨가물에 대해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엄마의 이런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의 완고함과 아이의 욕구가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충돌하였다. 그러한 갈등을 경험삼아 처음의 네거티브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지금은 좀 더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 내는 어른들이 문제인 것이지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때론 이런 것까지 교육받고 음식을 골라 먹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서글프다.

공동육아 모임 경험과 민우회 생협을 통해 나는 세상과

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내가 사회에 관심을 갖고,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준 곳도, 여성주의라는 새로운 시각을 세워준 곳도 바로 민우회였다. 어쩌면 나처럼 사회와 단절된 것 같은 소외감 속에서 힘겨워하면서 자신의 삶의 사회적 의미를 간절히 찾는 여성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곳에서 만난 많은 여성들의 모습이 나를 변화하게 만들었다. 나의 일상도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지금은 고양여성민우회 부설 지역아동센터 꿈틀이에서 상근교사로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내가 꿈꾸던 일을 실현하도록 기회가 생긴 것이다. 아직은 좌충우돌 배우는 과정이지만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즐겁게 채워나가려고 노력한다.

일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생활은 좀 더 느긋해질 수 있어졌다. 아마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좀 더 느리게 먹고(슬로푸드, 전 자렌지 안 쓰기, 현미밥 오래 씹어먹기 등), 좀 더 때를 기다려 가르치려 하고, 가장 어렵지만 차츰 비우면서 살아가고자 한다. 대신 그 자리에 함께 먹는 밥상에 내 이웃들의 손가락을 올리고 있다.

나는 그렇게 세상과 통하고 싶다. 

최정은 ● 고양여성민우회 생협 교육위원회 식생활 강사를 했었고요, 현재 고양여성민우회 부설 지역아동센터 꿈틀이에서 상근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슴 (Invisible Heart)

낸시 폴브레 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다소 _ 북카페 1호점



2007년 하반기 다소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담고자 하는 고민을 안고 '다소 - 북카페 1호점'이라는 열린 세미나 모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그리고 바로 첫 번째 책이 낸시 폴브레의 '보이지 않는 가슴'(Invisible Heart)이다.

'보이지 않는 가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여성주의 경제학자가 쓴 '보살핌의 경제학'이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담 스미스가 저자의 출발점이고 '보이지 않는 가슴'은 경쟁과 이익추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경제학의 연구대상이 무엇이어서 하며, 경제적인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급진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경제적 지표로 다우존스가 아닌 덕존스, 와존스, 돌리존스와 같은 새로운 지표를 만날 수 있다. 여성과 이타주의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지 개혁, 학교의 재정, 세금제도 등과 같은 정책적인 이슈를 새롭게 해석하고, 세계화의 도전에 맞서며, 개인의 성취와 타인을 보살피는 일 모두를 보상할 수 있는 경제 제도의 개발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한다.

세미나 참가인원이 7-8명 정도밖에 안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보살핌 노동이라는 특수성, 개개인의 경험의 차이, 보살핌에 대한 가치 부여 등에 따라 그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은 다양했다. 주로 보살핌 노동의 공평한 분담, 공공화, 시장화, 정책, 가치를 비롯해 보살핌 노동의 딜레마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해보았다. 여성은 보살핌의 과도한 책임감을 스스로 털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흔쾌히 털어내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보살핌 노동이 주는 아름다움, 편안함... 보살핌 노동은 희생을 강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보살핌과 나눔의 가족가치를 추구하고 사랑, 의무, 호혜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는 저자의 '가족 국가'라는 개념에 우리는 불편하기도 했고(일부는 경기를 일으키기도), 저자의 가족에 대한 일화는 설명하려는 개념에 잘 와 닿지 않아 뜬금없기도 했지만, 정치 경제학의 오래된 난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시는 '보이지 않는 가슴'의 강점이 아닐까 한다. **▲**



기타반 ETC의 음악다방

뮤지컬 RENT O.S.T



사실 뮤지컬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식상하지만, 뮤지컬 마니아(?)로서 가장 좋아하는 넘버가 가득한 작품이다. 뉴욕 슬럼가의 가난하고 젊은 예술가들, 에이즈 환자, 성 소수자들의 이야기며 천재 작곡가이자 작사가인 조나단 라슨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희망조차 사치인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 내일은 없어 오직 오늘뿐(No day but today)"을 가슴 터질 듯 노래한다. 여주인공 미미의 파워풀한 솔로곡 'Out Tonight'과 로저의 'Another Day'는 "두려워 말고 사랑을 해오"와 "오늘 말고 이 다음에"의 대비가 인상적이다. 우리 앞에 놓인 '오십이만 오천육백분의 귀한시간을 노래하는 'Seasons of love', 레즈비언 커플의 사랑 혹은 이별가 'Take me or Leave me' 등 버릴 노래가 하나도 없다. 덧붙여 여러 버전을 비교해 보는 재미도 있다.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 버전, 캐스트와 언어에 따라 수없이 많은 뮤지컬 버전이 각기 '맛'이 다르니 골라듣는 재미가 쏠쏠. ● **가락**

GALLIANO - long time gone



순간도 순간의 영원이라, 음악을 듣는 어느 순간의 영원은 온몸의 에너지로 음악을 듣고 있다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저처럼 '멜로영화를 왜 보느냐, 손가락으로 눈 찌르면 눈물나지 않는가'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메탈이 아니어도 가슴이 떨릴 수 있다 일러준 저의 몇 안 되는 취향 중 하나입니다. 듣다보면 배꼽이 춤을 추고, 발톱이 흥분하고, 흥채가 전율하네! ● **락소년**

THE SMITHS - Frankly, Mr. Shankly (솔직히 말해서, 생클리씨)



생클리 씨, 솔직하게 말
씀드리자면 / 당신이
준 일자리 덕분에 제가
먹고 살고는 있지만 /
지금 내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 것 역시 / 이
일자리 때문이랍니다 /

그러니 이젠 그만두겠어요, 당신도 잘 다시 보고 싶
진 않으시겠조 / 저는 음악계에 투신하여 이제부터
음악사에 / 그 이름을 남길 생각이거든요 (중략) / 사
실 이렇게 까지 무례하게 쿨고 싶지는 않았습디만
/ 어쨌든 저는 계속 솔직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
우리 돈을 주세요, 지금 당장!

늘 듣던 스미스를 소개하면 좋겠다하고 자켓을 뒤적이던 중 번역된 가사를 보니 어쩔 저리 와 닿는지 말이지. 지금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시 속이 후련합니다. 그 그룹 스미스(The Smiths)는 한때 쫓아다니던 인디 그룹의 기타리스트가 좋아한대서, 어떤 '사람'이지? 하며 무작정 찾아 들었던 앨범이었습디다. 스미스는 사람이 아니라 그룹 이름이었고, 영국색의 흐릿한 감성과

너무나 독특한 모리세이의 목소리는 블랙홀마냥 절 빨아들이더군요. 게다가 저런 가사를 쓴 모리세이는 어떤 사람일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강렬한 첫인상과 로맨틱 혹은 끈적함이 느껴지는 기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길! ● **바다**

오지는 1집 [지은]



싱어송 라이터 오 지은의 1집 앨범. 독립뮤지션으로 활동하다가 모금형식으로 팬들의 선금(?)을 받아 앨범을

'직접' (진짜로) 제작해서 발매했다. 기타 하나, 건반 하나, 목소리 하나. 초 심플로 이루어진 앨범이지만 곡은 진실 되고, 노래는 힘이 있다. 81년생인 그녀가 살면서 느낀 것들로 쓰여진 삶과 사랑의 노래들은 끈끈이처럼 가슴에 착 달라붙어 잘 잊혀지지 않는 자욱을 남긴다. EBS스페이스공감에서 공연을 보고 '오마네' 했는데 역시나, 판매처인 향뮤직에서 2007년 판매량 결산 2위에 올랐고 '올해의 앨범-한국 인디부문'에 선정되었다. 천편일률적인 가요에 질렸으나 국 '지' 적 감수성과 언어의 정박때문에 팝송만으론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들, 얼른 구입하여 실력있는 뮤지션도 살리고 한국 대중음악 다양성에도 기여하자. 구입처 hyangmusic.com, 싸이월드 뮤직홈에서 미리 들어 볼 수 있다. ● **다라**



지부 소식

www.womenlink.or.kr

고양여성민우회

제6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기간 : 3월 19일~5월 9일(매주 수, 금요일 오전 10시~3시) 총 64시간교육
- 장소 : 고양여성민우회 교육장
- 대상 :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본 교육의 90%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 상담원교육 후 상담실습 및 교육시간을 거쳐 본 상담소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907-1003 김진희

군포여성민우회

사진 교실

- 대상 : 모든 종류의 카메라를 갖고 계신 분
- 일시 : 3월부터 시작합니다.
- 장소 : 민우회 교육장

새내기들 모여라

- 내용 : 신입회원, 조합원 민우회원으로서 정체성 갖기
- 일시 : 3월 중순
- 장소 : 민우회 교육장

기타 교실 초급~고급 수강생 모집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5시~7시
- 장소 : 민우회 교육장

무지개 모임

- 내용 : 여성학, 성교육, 상담 공부모임
- 일시 : 2월 18일부터 월2회 공부모임, 월회 회의
- 장소 : 민우회 교육장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현직교사와 함께하는 새학기 학부모교실

-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과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방법,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것을 생생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현직교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 일시 : 초등 - 2월 18일(월) 오전10시, 중등 - 2월 25일(월) 오전10시
 - 장소 : 본회 교육장
 - 참가비 : 3천 원, 개인 컵 지참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 일시 : 2월 17일(일) 오후2시~6시
- 장소 : 신방학초등학교 운동장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생협 정기총회

- 일시 : 2월 20일(화) 오전10시
- 장소 : 도봉여성센터 2층 대강당

서울남서여성민우회

녹색가게 교복 교환 행사

- 일시 : 2월 21일(수)~22일(목)
- 장소 : 양천구청 대강당

우리 지역 알아보기

- “친구야! 백제문화탐방이다”
- 내용 : 역사학자와 함께하는 우렁바위, 신정

동도성 향천향교 등 우리 지역 유적지 탐방

- 일시 : 2월 27일(수)
- 장소 : 양천구, 강서구 지역탐방

회원 만남의 날

- 내용 : 영화보고 으싸 으싸 다지기
- 일시 : 3월 24일(월)

서울남부여성민우회

모여라-조조영화보기

- 내용 :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회원들과 담소도 나누는 시간
- 일시 : 2월 11일(월)

대보름 놀이

- 내용 : 소중한 우리의 전통놀이를 이웃, 가족과 함께 즐겨요
- 일시 : 2월 21일(목) 저녁7:30~10:30
- 장소 : 개포3동사무소 옆 농구장

구 살림살이 옛보기

- 내용 : 의회방청
- 일시 : 3월중

원주여성민우회

도루코 파업 승리 투쟁 기금 마련을 위한 주점

- 내용 : 도루코 문막공장 파업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
- 일시 : 2월 1일(금) 5시부터
- 장소 : 원주시 단계택지 '사랑과 평화'

강원여성연대 총회

- 일시 : 2월 13일(수)
- 장소 : 태백

인천여성민우회

여성연대, 여성의원과과의 간담회

- 내용 : 여성단체 사업교류 및 여성정책 제안
- 일시 : 미정
- 장소 : 본회 교육장

회원의 날

- 내용 : 재정사업 논의 및 결의
- 일시 : 2월 15일(금)
- 장소 : 본회 교육장

테마기행

- 내용 : 미정
- 일시 : 3월 22일(토)
- 장소 : 미정

진주여성민우회

행복한 나들이

- 내용 : 회원들과 함께하는 나들이
- 일시 : 2월 15일(금)
- 장소 : 산청 예담촌

운영위원 워크샵

- 내용 : 2008년 사업내용 및 일정 공유
- 일시 : 2월 22~23일
- 장소 : 아침교요산방

성교육위원모임

- 내용 : 회원들과 성교육강사들의 교육모임
- 일시 : 2월부터 매주 화요일 10시30분
- 장소 : 본 상담소

3.8세계여성의 날 10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3월 7일(금)
- 장소 : 미정

상담위원모임

- 내용 : 회원들과 상담원들의 상담공부
- 일시 : 매주 금요일 10시30분
- 장소 : 본 상담소

새내기학부모교실

- 내용 : 새내기학부모에 용기 불어넣기
- 일시 : 2월 19일(화) 2시
- 장소 : 이현동사무소

춘천여성민우회

삼색모람

- 내용 : 반찬 한가지씩 가지고 와서 이야기 나누며 나누어 먹기
- 일시 : 2월 12일(화)
- 장소 : 민우회 사무실

강원여성연대 총회

- 일시 : 2월 13일(수)
- 장소 : 태백

여성학 모임

-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7시
- 장소 : 민우회 사무실

말아톤 모임

- 내용 : 걷고 달리며 건강을 다지는 모임
- 일시 : 매주 월요일 저녁8시
- 장소 : 소양2교 필라델피아 앞



민우회 20년 운동사 「여성운동 새로 쓰기」 발간!

한국여성민우회가 걸어온 20년의 길을 담은 「여성운동 새로 쓰기」(한울아카데미)가 발간되었습니다. '새로운 여성운동'을 꿈꾸는 여성운동가들의 뜨거운 호흡과 숨결이 담겨있는 「여성운동 새로 쓰기!!」 얼른 얼른 사서 읽고, 선물도 해요~! ^^



민우회 상근 활동가님들께
민우회와 인연을 맺었지만 벌써 몇 년이 훌쩍
의용군이 된 딸 아들을 낳고 외출을 라듯 볼
회원님, 감사해요
사실, 민우회 여성에 여성운동자
다음의 공통점은?
1단계 Q) 캠퍼, 전기난로
아직 어렵지요?
2단계 Q) 최윤정 님, 들통 님



최윤정 님의 캠코더



들통 님의 히터

혹시 눈치 채셨나요?

2007년 겨울 12월에는, 부산에서 최윤정 회원님께서 활동가들이 전지현처럼 찍히는(?) 따끈한 캠코더를

기증하셨고, 민우회 멋진 모람 '일이삼반'의 핵심멤버 들통 회원님이 따듯한 겨울 보내라고 음이온을 내뿜으며 회전하는

전기난로를 기증하셨습니다. 모두들 열싸안고 기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중한 기증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판에 박힌 인사말을 올리지만, 이젠 정말 진심이라는 감격의 마음도 함께 보냅니다.

최윤정 님, 들통(박하윤경) 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겨울마다 제주도 무궁해 굴로 활동가들의 피부미용에 도움을 주시고 이번엔 컴퓨터까지 보내주신 활동가 락소년의 아버님께서도 감사를 표합니다.^^)

회원이 민우회의 주인입니다.

[함께가는 여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읍니다. [함께가는 여성]을 읽고 느낀 점이나, 민우회에 바라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독자마당'을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민우회가 마련한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자의견은 민우회 이메일 minwool@womenlink.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웃어라 민우회! 민우회원 생활백서

- ① 민우회에 대한 나의 애정을 표현하고 싶다.
- ② 민우회로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낸다.
- ③ 천원이든 만원이든 사알~짝 회비를 올린다.

사알짝 회비 인상하신 고마운 회원분들!!!

박미나 박연심 최인정 김인숙 조인섭 정하경주 조혜련 들통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영숙 유희정 송순천 박영이 심미영 하미정 이선영 김민자 김혜영
김영주 이명숙 정지혜 박정심 김부영 강판기 박우철 김병과 이필규
박원귀 오수진 김일억 한환기 조평익 이성철 진광성 손은일 이재은
오진경 김윤숙 김 숙 박현아 황차남 정소영 정미라 김문규 황미희
장명임 한혜성 차득남 이기정 김경희 이경화 김재학 오민자 김향화
위소영 김성철 김홍재 김순애 임혜자 임유정 박민영 황익순 김범진
이지연 박철형 정광미 주연희 한은정 박진형 최필주 이재욱 임오주
김태영 이수진 김효진 김영희 정영란 김경희 김언지 이상숙곽정란
이진영 김문휘 김부자 강선미 김지현 김혜경 김영아 윤은정 김보미
안지연 잔차 하나

(2007년 12월 2일~2008년 2월 13일)

정정합니다!

11 · 12월호 6페이지 22~33줄에서 '호칭'을 '지칭'으로 정정합니다.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냅니다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합니다

혹시라도 성범죄자가 되어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본인과 자기가족의 불행을 초래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이를 널리 알리는 예방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2. 4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 확정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이름, 사진, 나이, 주소, 직장 등 상세 정보가 공개됩니다.
-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보호자와 청소년 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은 성범죄자의 상세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10년간 아동·청소년 시설과 학교, 학원, 유치원 등 교육기관 및 아파트 경비원 등에 취업이 금지됩니다.
- 취업금지 대상 기관은 국가청소년위원회나 해당경찰서에서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확산 방지를 위해 단순소지자도 처벌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를 참조해 주십시오.



회원문의 02-737-6050 팩스 02-736-5766 / 02-739-8871
고용평등상담 02-706-5050 팩스 02-736-5766 / 02-739-8871
미디어운동본부 02-734-1046 팩스 02-739-887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팩스 02-736-5766 / 02-739-8871 상담 02-739-1366-7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02-581-1675 팩스 02-3679-2202
서울남부여성민우회 02-459-3519 팩스 02-3411-3519
서울남서여성민우회 02-2643-1253 팩스 02-2643-1252 매장 02-2643-6060
서울동북여성민우회 02-3492-7141 팩스 02-3493-9221 생협 02-3492-7140 생협매장 02-3492-9999
고양여성민우회 031-907-1003 팩스 031-907-5009 매장 031-919-1774 상담 031-919-1366
광주여성민우회 062-529-0383 팩스 062-529-0384 상담 062-521-1366 성폭력센터 062-462-1366
군포여성민우회 031-396-0201 팩스 031-394-2343 매장 031-396-0261 상담 031-396-0236
원주여성민우회 033-732-4116 팩스 033-744-0113
인천여성민우회 032-525-2219 팩스 032-525-2256
진주여성민우회 055-743-0410 팩스 055-746-9771 매장 055-746-7077 상담 055-746-7462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팩스 033-243-9746 상담(노동) 033-254-2155

